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2.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8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입구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3. 공천 위원회 알림 : 이정석 권사님께서 새로운 예배 위원장으로 공천 되셨습니다.

• <2027년도 신령직 천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모임 안내>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신령직(집사, 권사, 장로) 규정에 따라 신령직 천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모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날짜 : 8월 9일(주일) * 장소 : 대예배실
- * 시간 : 주일 1부 예배 후 / 주일 2부 예배 후
- * 신령직 천거 위원 선출(제비뽑기)이 있습니다.
(장로 3명 / 남자 권사 3명 / 여자 권사 3명)

• 신령직 천거 위원회 모임

일시 : 8월 15일(토) 오전 7시

장소 : 초등부실

• 한글학교 안내

2026년도 한글학교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 * 개강일시: 8/22(토) ~ 12/5(토), 16주간, 오전 9시부터 12시
- * 대상: K(5yo) - 12학년, 성인반 (Adult Class)
- * 한글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교사도 모집합니다.
- * 문의: 김 경 집사/ 954-328-5187

• 남플 가을소풍/체육대회 안내

1) 남플 가을소풍/체육대회

- * 날짜 9월 7일(월), Labor Day
- * 장소/ Tradewinds Park/ Grandiosa Shelter
3600 W Sample Rd, Coconut Creek, FL 33066
- * 행사를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 * 문의- 홍석주 집사 / 윤성민 전도사

• EM Church 부흥회 안내

EM 교회 부흥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 * 8/2(주일) 주일예배 10:30am
- * 강사 : John Kim 목사 (Kairos Global Mission)
- *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난주 헌금 통계

일반헌금	\$17,938.00	심일조: \$10,043.00 주 일: \$2,537.00	감 사: \$2,125.00 기 타: \$3,233.00
지정헌금	\$2,905.00	목장선교: \$875.00 중남미: \$2,000.00	건축: \$3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성령강림후 열번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2부(10:30am)

인도자 Presider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310장(통4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Prayer / 이미셀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주의 믿음 안에서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주 예수 내 맘에,

목마른 내 영혼,

꽃들도,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기도 Prayer / 조필환 장로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주의 믿음 안에서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상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민(Num) 12:3.....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성령의 열매 (8)- 온유 >

Fruit of the Holy Spirit (8)- Gentleness

성만찬 Holy Communion

▲ 파송찬송 Closing Hymn/ 1부: 보혈을 지나. 2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8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8월 2일	1부	사랑나눔 목장	담당자	이미셀권사	
	2부			조필환장로	
다음주 8월 9일	1부	사랑나눔 목장	담당자	김정희권사	
	2부			정성엽장로	

설교요약

많은 사람들은 온유를 단순히 착한 성격이나 순한 사람,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온유(πραύτης)라는 헬라어는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힘이 있지만 그것이 잘 통제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말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통제 아래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상태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도 온유는 감정을 다스리는 덕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중용 으로 설명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올바른 때와 이유와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유는 인간의 이성이나 수양만으로 만들어지는 덕목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이 인간의 절제와 훈련을 강조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에 다른 조건을 더하려 했고,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는 혼란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분노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온유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감정과 반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내 힘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며 온유의 열매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마 11:29)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연약함이나 소극적인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강한 내면의 힘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노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절제된 강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설교 요약>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온유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범직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온유입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온유했던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유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에게 비방을 받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 변명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그녀를 위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온유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권리를 맡기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큰소리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자신의 마음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힘을 다스리며,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성령님, 제 마음과 감정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온유가 나타나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나눔 질문 >

- 1) 내가 경험한 사람 중에 온유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며, 그 사람에게서 배우고 싶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 2)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힘과 감정을 맡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관계나 상황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3) 모세는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에게 비방을 받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본받아야 할 모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 4) 이번 한 주간 가정, 직장, 교회에서 성령의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은지 나누어 봅시다.